

비문학의 원리 이해

주제문 / 핵심구절 찾기 자료
정답 & 문제

먼저 오래 가핀 제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이 너무 많려 있어서요.

답글 올랐는데 하루에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쓰기 강의 교재 만든
느리고 일주일에서 거의 3일 밤을 샅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

2월부터 나가는 쓰기 & 어휘 어법 강의를
많이 들어주세요.

가능하면 제자들 보기 편할 수 있도록 만드느라
고민 했습니다.

이용방법

1. 일단 단락의 화제와 주제문,
핵심어, 핵심 구절을 알 수
있도록 표시했습니다.
2. 핵심 구절(동료미 표시)을 이어서
하위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글의 요약이 됩니다^^)
3.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 보시면
주제문과 핵심어를 찾으면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답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비문학의 원리 이해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매일 밤 자신의 피부를 감싸고 있던 ㉠땀개(옷)들을 벗어 벽에 걸어 둘 뿐 아니라, 신체 기관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도구들, 예를 들면 안경이나 가발, 의치 등도 모두 벗어 버리고 잠에 든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잠을 잘 때 옷을 벗는 행위와 비슷하게 자신의 ㉡의식(意識)도 벗어서 한쪽 구석에 치워 둔다고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삶을 처음 시작할 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셈이 된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잠든다는 것은 평온하고 안락한 자궁(子宮) 안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잘 때 태아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마찬가지로 **잠자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보면 의식의 세계에서 거의 완전히(돌려나 있으며), ㉢외부에 대한 관심도(정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꿈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수면 중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꿈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과, 꿈의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은 항상 꿈꾸는 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간단히 ‘수면 상태의 나르시시즘(narcissism)’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정신의 작용 방향이(외부 세계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비로운 현상으로 여겨 왔던 꿈의 ‘진단’ 능력에 대해서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해졌다. 꿈 속에서는 모든 감각이 크게 과장되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이상 증상이 깨어 있을 때보다 더 빨리, 더 분명하게 감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꿈의 과장성’ 역시 외부 세계로 향하던 정신적 에너지가 자아로 되돌려지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감지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꿈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외면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를 ‘투사(投射, projection)’라고 하는데, 우리는 꿈속에서 평소에는 억누르고 있던 내적 욕구나 콤플렉스(강박 관념)를 민감하게 느끼고, **투사를 통해 그것을(㉤의적인 형태로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죽은 동료의 꿈을 꾸는 경우, 이는 그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그러나 깨어 있을 때는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책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에게 꿈이 중요한 까닭은 이처럼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보여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꿈을 통해 그 사람의 잠을 방해할 정도의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까지도 알게 된다. 그런 일은 깨어 있을 때에는 쉽사리 알아대기가 어렵다. 이는 따뜻하고 화려한 옷이 몸의 상처나 결점을 가려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 때문이다. 우리는 정신이 옷을 벗기를 기다려 비로소 그 사람의 내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1.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람들은 잠이 들면서 의식의 작용이 거의 멈춘다.
- ② 꿈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인물은 꿈을 꾸는 사람 자신이다.
- ③ 꿈을 통해 신체적 이상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 ④ 잠잘 때는 깨어 있을 때보다 내적 욕구가 더 강해진다.
- ⑤ 꿈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구체화하여 보여 준다.

2. 밑줄의 내용 전개상의 특징과 효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화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끝을 맺어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 ②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한 뒤 그 내용을 간단한 용어로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여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 ④ 여러 관점의 이론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⑤ 추상적인 내용을 익숙한 경험에 비유하며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3. <보기>에 나오는 ‘이성계의 꿈’에 대해 이 글의 관점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해설한 것은?

<보 기>

이성계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흘 연달아 꿈을 꾸었다. 하루는 등에 서까래 셋을 지고 길을 가더니, 다음 날에는 양을 만나 뿔을 잡자 뿔이 모두 빠지고 꼬리를 잡자 꼬리도 빠졌으며, 마지막 날에는 땅 위에 작대기로 길다랗게 금을 긋는 것이었다. 한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등에 서까래 셋을 지었으니 이는 ‘임금 왕(王)’ 자요, 양(羊)의 두 뿔과 꼬리가 없으니 이 또한 ‘임금 왕(王)’ 자며, 땅(土)에 작대기로 금을 그으니 이도 역시 ‘임금 왕(王)’ 자가 된다.” 라고 하였다.

- ① 하늘이 이성계에게 나라를 맡기겠다는 뜻을 꿈을 통해 전달한 것이다.
- ②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퍼뜨리기 위해 이성계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다.
- ③ 이성계의 가슴속에 숨어 있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상징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 ④ 고려 왕조의 멸망을 예견한 사람들이 별 의미 없는 꿈을 의도적으로 ‘왕이 될 꿈’으로 해석한 것이다.
- ⑤ 이러한 꿈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전해 오던 것이었으나, 이성계가 자신의 처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다.

4. 문맥상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 ① 잠이 콤플렉스의 심화를 막아 주기
- ② 꿈이 정신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기
- ③ 깨어 있는 의식이 내면 세계의 관찰을 방해하기
- ④ 투사 작용이 정신의 약점이나 결함을 가려 주기
- ⑤ 수면 상태의 나르시시즘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기

5. ㉠~㉥중, 문맥적인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문학의 원리 이해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①치솔질 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치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주체이다.
- ②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 ③ 자본주의 초기에도 기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켰다.
- ④ 전문 경영인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없으면 기업의 장기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 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이해 집단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7. 밑글에서 설명한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한 것은?

- ① 관객이 늘어남에 따라 극장이 점차 대형화되었다.
- ②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주의 신비가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 ③ 생산 활동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었다.
- ④ 인간은 자신의 생존만이 아니라 점차 환경과의 조화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 ⑤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다가 점차 미래를 위해 음식을 저장하게 되었다.

8. 밑글의 논지에 비추어 '기업 : 이익'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TV 방송 : 카메라 ② 시계 : 틱나바퀴
- ③ 연주회 : 지휘자 ④ 스포츠 : 규칙 준수 ⑤ 정당 : 정권 획득

9.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의 표기 원칙을 설명한 항목은?

<보 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뒷간(退間), 횡수(回數)

- ① 제30항 1-(1) ② 제30항 1-(2)
- ③ 제30항 2-(1) ④ 제30항 2-(2)
- ⑤ 제30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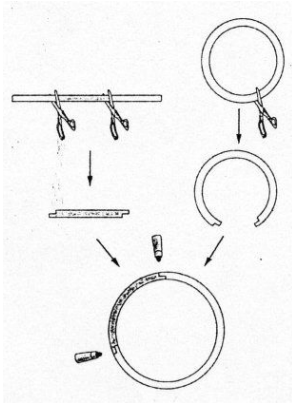
10. ㉠의 구체적인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업원 연수의 기회를 확대한다.
- ② 고객에게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 ③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한다.
- ④ 지역 사회에 안락한 공원을 조성해 준다.
- ⑤ 불우 이웃을 위한 성금을 낸다.

비문학의 원리 이해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명의 구조를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술을 생명 공학 기술이라 한다. 이 중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분자 생물학의 주된 방법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전자 ㉠조성(組成)을 가진 생물**, 즉 유전자 변형 생물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는 유전 공학 기술이다.



유전자를 재조합하기 위해서는 DNA를 절단하는 가위와 이를 접착하는 풀이 필요하다. 가위의 구실을 하는 것은 ‘제한 효소’라는 단백질인데, 이것은 DNA의 각기 다른 위치에서 작용한다. 풀 구실을 하는 것은 ‘리가아제’라고 부르는 효소인데, 이것은 절단된 DNA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일단 시험관 내에서 제한 효소와 리가아제에 의해 재조합된 DNA는 다른 생물체 내로 이식되어 유전자 변형 생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위해서는 ‘벡터’라고 불리는 운반체가 이용된다. 요컨대 DNA라는 긴 실 위에 하나하나의 단편으로 존재하는 유전자 가운데 특별히 유용한 유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 단편을 가위로 잘라 내어 그것을 운반체에 풀로 붙여 넣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유전자 변형 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유전자 변형 생물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제초제 저항성 옥수수나 콩이 그 예에 속한다. 둘째는 유전자 변형 생물이 만들어 내는 **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유전자 변형 대장균으로부터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인슐린이나 인간 생장 호르몬을 추출하는 일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는 유전자의 기능 및 발현 패턴을 연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가령 최근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 알려진 수많은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고자 할 때, 바로 유전자 변형 생물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 공학 기술은 작물 개량 및 증산을 통한 식량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약품 개발, 난치병 치료, 환경 정화 등에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우리의 식탁에도 유전자 변형 식품이 매일 매일 오르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 생물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 예로 ㉡일부 환경 운동 단체에서는, 제초제 저항성 작물이 그것과 유연(有緣) 관계에 있는 잡초와의 교잡에 의해 초강력 잡초를 생성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유전자의 도입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항

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우리 몸 속에 있는 대장균으로 옮겨 가서 항생제에 저항성을 갖는 박테리아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도 유전자 변형 생물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보기도 한다.

11.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8점]

- ① 유전자 변형 생물을 만드는 기술은 생명 공학의 한 분야이다.
- ② 유전자 재조합은 DNA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유전자 재조합에는 제한 효소와 리가아제가 필수적이다.
- ④ 벡터는 재조합된 DNA의 운반체로 사용된다.
- ⑤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목적은 유전자 변형 생물을 만드는 것이다.

12. 밑줄에서 설명한 ‘제한 효소’와 ‘리가아제’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화물차와 승용차 ② 사무용 책상과 의자
- ③ 휴대용 전화와 배터리 ④ 수술용 칼과 봉합용 실
- ⑤ 컴퓨터와 컴퓨터 마우스

13. ㉠의 의미를 바르게 추정한 것은?

- ① 환경과 관련된 테니까, 분위기를 만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 ② 유전 공학 기술은 유익한 것이니까, 도와서 이룬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 ③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것이니까, 발생과 성장이 빠르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 ④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니까, 무엇을 만들어서 이룬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 ⑤ 유전자는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이니까, 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성이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14. 밑줄처럼 유전자 변형 생물을 만들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의 견해를 참조하여 조언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한 속담은?

- ① 뭇물이 많아야 아랫물이 많다.
- ② 둘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④ 얹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지 오른다.
- 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비문학의 원리 이해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 예술의 현대화나 민족 예술의 세계화라는 명제와 관련하여 흔히 사물놀이를 모범 사례로 든다. 전통의 풍물놀이(농악)를 무대 연주 음악으로 탈바꿈시킨 사물놀이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예술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잡은 가운데 우리 전통 음악의 신명을 세계에 전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물놀이의 예술적 정체성 및 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나) **사물놀이의 옹호자**들은 사물놀이가 풍물이나 무악(巫樂)과 같은 전통 음악의 **이법을 창조적으로 계승했음을 강조한다**. 기본 장단의 구성이나 ㉠느린 박자에서 빠른 박자로 전개되는 점층적 가속(加速)의 구성 등을 이어 받는 한편, ㉡치고 달고 맺고 푸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극적 변화를 통하여 미적 감흥을 극대화하였다는 것이다. ㉢장.뽕과리의 쇠소리와 북장구가 내는 가축 소리의 절묘한 어울림을 통해 '음양(陰陽) 조화의 원리'를 구현했다고도 한다. 사물(四物)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한 결과이고 '음악'에 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성과다.

㉣**춤 발림,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열린 마당에서 벗어나 무대에서의 '얇은 공연'을 선택한 결단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현대적인 공연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놀이는 무대 공연물 관람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변신은 ㉤**사물놀이와 현대 음악의 만남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국내 피아니스트 및 대중 가수, 교향악단과의 협연은 물론 국외 음악인들과의 거듭된 협연을 통해 사물놀이는 그 음악성을 널리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물놀이와 협연했던 세계적인 재즈 그룹의 한 연주자는 이렇게 말한다. "완전함과 통일성을 갖춘 사물놀이의 음악을 들었을 때 클래식만을 고귀하게 여기는 유럽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느꼈다. ㉥**서양의 소리와 동양의 소리의 만남을 통해 나는 형식과 전통을 뛰어넘어 많은 깨우침을 얻는다**."

(다) 그러나 문화계 일각에서는 **사물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통 풍물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쪽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사물놀이가 풍물놀이의 **굿 정신을 잃었거나 또는 잃어 가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풍물놀이는 흔히 '풍물굿'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모두가 마당에서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춤기예(技藝)와 더불어 신명 나는 소리를 펼쳐 내는 것이 본질적 특성인데, 사물놀이는 리듬악이라는 좁은 세계에 안착함으로써 **풍물놀이 본래의 예술적 다양성과 생동성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사물놀이에 의해 풍물놀이가 대체되는 흐름은 우리 민족 예술의 정체성 위기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사물놀이에 대한 우려는 그것이 창조적 발전을 거듭하지 못한 채 ㉦타성에 젖어 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제기된다. 많은 사물놀이 패가 새로 생겨났지만, 사물놀이의 창안자들이 애초에 이룩한 음악 어법이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내지 못한 채 그 예술적 성과와 대중적 인기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물놀이가 민족 예술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비판자들은 혹 시라도 사물놀이가 대중의 일시적인 기호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머지않아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15. 밑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에 비하여 역사가 짧다
- ②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그 음악적 뿌리가 같다.
- ③ 사물놀이는 국내외의 다양한 음악과 협연하였다.
- ④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와 달리 마당에서 움직이면서 한다.
- ⑤ 사물놀이의 영향으로 풍물놀이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

16. (나)의 '사물놀이의 옹호자'가 (다)의 '사물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반박할 때의 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은 국경을 초월한다.
- ② 현대는 종합 예술의 시대다.
- ③ 대중 없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다.
- ④ 새로운 예술적 시도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 ⑤ 예술적 생동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17. ㉠의 '음양 조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물놀이와 풍물놀이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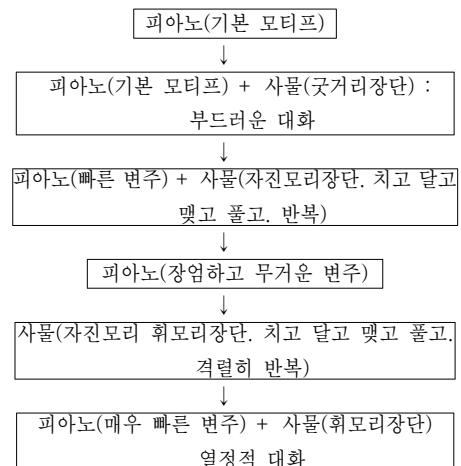
- ①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서양 음악과의 만남을 적극 시도해서 세계 무대로 진출해야 한다고 봐.
- ② 사물놀이와 풍물놀이가 각기 정체성을 살리는 가운데 서로 도와서 함께 발전해 나가면 좋겠어.
- ③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를 절충한 새로운 공연물을 만들어서 둘의 장점을 살리게 좋겠어.
- ④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의 성과를 받아들여 현대적인 무대 예술로 나아가야 해.
- ⑤ 사물놀이는 '마당'으로 돌아와 풍물놀이처럼 대중적 신명을 살려야 해.

18. ㉢과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타성이 붙고 ② 타성에 물들고 ③ 타성이 생기고
- ④ 타성에 스며들고 ⑤ 타성에 빠져 들고

19. <보기>는 '사물놀이와 재즈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의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 중,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보 기>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비문학의 원리 이해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말’이란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 혹은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 그리고 ㉡이미 있던 말이라도 새 뜻이 주어진 것을 통틀어 일컫는다. 다른 언어로부터 사물과 함께 차용되는 외래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새말은 민중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쓰이는 것과 언어 정책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보급되는 것이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들은 새로운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 것과, 언어 표현이 진부해졌을 때 그것을 신선한 맛을 가진 새 표현으로 바꾸려는 대중적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이 모두 재료로 쓰인다.

정책적인 계획 조어의 경우는 대개 국어 순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로 고유어가 사용되며, 한자말일지라도 아주 익어서 고유어처럼 된 것들이 재료로 쓰인다. ‘한글, 단팔죽, 꼬치안주, 가락국수, 텃밭, 책꽃이, 건널목’ 등은 계획 조어로서 생명을 얻은 것들이며, ‘뽕샘, 뽕샘, 모눈종이, 반지름, 지름’ 등의 용어들은 학교 교육에 도입되면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불고기, 구두담이, 신문팔이, 아빠, 끈끈이, 맞춥, 병따개, 비웃’ 등과 같이 누가 먼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얻은 말들도 많다. 이렇게 해서 새로 나타난 말들은 민중들의 호응을 받아서 기성 어휘로서의 지위를 굳히는 것과 잠시 쓰이다가 버림을 받는 것, 처음부터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여 일반화되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잠시 쓰이다가 버림을 받게 되는 말들은 대개 어느 한 사회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호응을 받았을 뿐 널리 일반화될 기회를 얻지 못한 것들이다.

(나) 이미 써 오던 말을 새말로 바꿔 쓰자고 하면 민중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새말이 익히 쓰이던 말을 제치고 통용되는 일도 있다. ‘도시락’이란 말이, 이미 익히 써 오던 ‘벤또’를 대체한 것이 그 예다. 심지어 ‘뽕밥’은 국어에서는 매우 흔하지 않은 조어(造語)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써 오던 ‘뽕부리’를 대체하고 완전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새말들이 성공적으로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된 말인 ‘벤또, 뽕부리’가 일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조어 방식에 문제가 되는 말이거나 느낌상 다소 어색하고 생소한 말이어도 ㉣강력한 동기가 제공될 때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같은 계열의 외래어인 ‘센누끼’는, 광복 후 오랫동안 ‘마개뽑이’가 권장되었지만 민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후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병)따개’로 대체되었다. 아마도 이는, ㉤새말이 내포하는 뜻이나 정서적 느낌이 대체될 말과 달랐던 것에서 비롯하였던 듯하다. 물론 조어 방식이나 길이가 문제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데이트’를 ‘만날약속’으로, ‘결벽(潔癖)’을 ‘깨끗버릇’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적도 있으나 이들도 생명력을 얻지는 못하였다. 전자는 그 뜻이나 느낌이, 후자는 조어 방식이 문제가 되는 말이었든 까닭에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데이트’는 만나기 위한 약속만을 가리키지는 않기 때문에, ‘버릇’은 ‘손버릇, 잠버릇’에서 보듯 명사와만 결합하며 ‘깨끗’과 같은 어간에는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것이다. 새말을 만드는 일이, 그리고 익히 쓰이던 말을 대체하기 위해 새말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 주는 예들이다.

20.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8점]

- 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은 고유어에만 구성된다.
- ② 실제적 필요와 표현의 참신성을 위해 생겨난 새말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른다.
- ③ 언어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든 새말은 민중으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는다.
- ④ 흔하지 않은 조어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은 민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사라진다.
- 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을 대체하기도 한다.

21. ㉠~㉤의 구체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종의 개구리를 가리키는 ‘황소개구리’
- ② ㉡: 일부 사람들이 나이 어린 여자 점원을 부를 때 쓰는 ‘언니’
- ③ ㉢: 부사 ‘몰래’와 명사 ‘카메라’를 결합하여 만든 ‘몰래카메라’
- ④ ㉣: 동사 어간 ‘먹’과 의존 명사 ‘거리’를 결합하여 만든 ‘먹거리’
- ⑤ ㉤: ‘헤어스타일’을 대체할 말로 제안되었던 ‘머리꼴’

22. 문맥상 ㉥가 뜻하는 것은?

- ① 신개념 생성 ② 실제적 필요 ③ 참신한 표현
- ④ 민족 정서 ⑤ 학교 교육

23. 밑줄에 비추어 판단할 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요즘은 휴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반가워(요)’, ‘컴퓨터’를 ‘방가’, ‘컴’으로 바꿔 쓰는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어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있다.

- ①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다.
- ② 기존 표현을 새롭게 바꾸려는 욕구에 따라 만들어진 말이다.
- ③ 글자 입력 속도를 고려하여 단어의 길이를 줄인 말이다.
- ④ 어법에 어긋나게 단어의 일부분을 써서 만든 말이다
- ⑤ 특정한 사회 집단에서만 호응을 얻는 말이다

비문학의 원리 이해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루소의 사상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선하고 자유롭고 행복했으나, 사회와 문명이 들어서면서 악해지고 자유를 상실하고 불행해졌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는 『에밀』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세상 만물은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와서 타락한다. 인간은 어떤 땅에서 다른 땅에서 나는 산물을 채배하려 드는가 하면, 어떤 나무에 다른 나무의 열매를 열리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인간은 기후·환경·계절을 뒤섞어 놓기도 한다. 무엇 하나 자연이 만들어 놓은 상태 그대로 두지 않는다.

루소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필요한 만큼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이상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으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다. 심지어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본능적인 심성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인지(認知)가 깨어나면서 ㉠인간의 욕망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사유 재산 제도가 형성되고, 그 결과 불평등한 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이기적 욕망으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사회는 ㉡인간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과 사회의 병폐에 대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 쓰여진 것이 『에밀』로서, 그 처방은 한마디로 인간에게 잃어버린 자연을 되찾아 주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 자연 상태의 원초의 무구(無垢)함을 되돌려 주어, 선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루소는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교육의 실체는 ㉢가공(架空)의 어린이 ‘에밀’이 루소가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이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교육은 자연상태의 인간이 본래의 천진무구함을 유지하면서 정신·육체적으로 스스로를 도야해 가는 과정을 따르는 것을 원리로 삼는다. 그 래서 지식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도만 배우게 하고, 심신의 발달과정에 따라 어린이가 직접 관찰하거나 자유롭게 능동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유로우면서도 정직과 미덕을 가진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자연 상태의 인간을 중시하는 그의 인간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기도 한다. 루소가 말하는 자연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인류의 역사가 너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본래 무구한 존재라고 본 그의 인간관과 인간 사이의 유대를 도모하고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상을 추구했던 그의 이상은 인간을 탐욕의 노예로 몰고 가는 오늘날에 더욱 빛을 발한다.

24. 밑줄에 나타난 루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문명의 발전을 인성의 발전과 동일시하였다.
- ②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했다.
- ③ 무구함의 회복이 인간의 행복과 통한다고 여겼다.
- ④ 사회 병폐에 대한 처방책의 핵심을 교육으로 보았다.
- ⑤ 도덕적 인간 양성이 이상적인 사회구축의 첩경이라고 믿었다.

25. 밑줄에서 루소가 말하는 ‘교육’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교육은 지식의 습득을 기본 목표로 한다.
- ②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 ③ 교육은 자아의 독립과 완전한 개성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 ④ 교육은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 ⑤ 교육은 제멋대로 흐르는 개울을 반듯한 수로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26. 문맥상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점]

- ① 식수를 구하려고 우물을 팠다.
- ② 추위를 막기 위해 의복을 만들어 입었다.
- ③ 먹고 남은 곡식으로 해마다 농토를 사들였다.
- ④ 추수가 끝나면 신께 감사하는 의식을 치렀다.
- ⑤ 외부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생활을 하였다.

27. ㉢ ‘가공’의 사전적 의미는?

- ① 일부러 꾸며 놓음
- ② 다듬어서 새롭게 만들
- ③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음
- ④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놓음
- ⑤ 이미 있는 것에 새 것을 더함

28. ㉣에 제시된 교육 방법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처럼,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되면 해롭지 않을까?
- ②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는 말도 있듯이, 아이들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면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까?
- ③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듯이, 어려서 이루어진 성격은 평생 좌우하지 않을까?
- ④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 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아이도 있는데, 뛰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비문학의 원리 이해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도적 혼합 문화는 적어도 세 가지의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게 된 세 가지의 위기란, 첫째는 (적합성(適合性)의 위기, 둘째는 (정체성(正體性)의 위기, 셋째는 (통합성(統合性)의 위기이다.

과도적인 생활 양식은 전통 사회의 생활 양식의 일부와 외래적인 생활 양식의 일부가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격차를 보이면서 서로 융합되지 않은 채로 혼재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변질된 과거의 생활 양식이 외래적인 유형과 적당히 타협해서 일시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의 관행(慣行)이 된다. 이와 같은 과도적인 행위 양식들도 행위 변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끊임없이 그 적합성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도적인 행위 양식 속에 혼재해 있는 외래적인 양식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끊임없이 시험받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과도적인 혼합 문화는 잘 통합되어 있는 문화가 아니며, 충분히 제도화될 수 있을 정도로 (영속적(永續的) 적합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과도적인 문화 속에는 한국 사회에 적합성을 가지지 못하는 **차용된 외래 문화가 많다.** 그와 같은 차용 문화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통 문화의 해체(解體)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화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외래 문화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적으로, 비판적으로, 주체적으로 수용되었다기보다는 모방과 도입에만 급급하면서 받아들인 문화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모방과 도입기를 거쳐 외래적인 행위 양식이 상당히 널리 확산되는 단계에 이르면 외래 문화는 문화적 전통의 정체(正體)를 위협하게 된다.

이처럼 정체(正體)의 위기에 당면한 사회에서는 문화적 전통과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그러나 문화적 정체(正體)의 회복이 전통 사회 문화로의 복귀나 외래 문화의 배격과 같은 문화적 복고주의(復古主義)나 문화적 폐쇄주의로 성취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문화적 복고주의나 문화적 폐쇄주의는 정체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적합성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체의 회복과 문화적 전통의 확립은 문화의 적합성을 회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현대 사회와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적 전통'의 재발견과 그와 같은 문화적 전통과 잘 통합되는 외래 문화의 선별적 수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과도적인 문화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전통 사회의 유형과 외래적인 유형이 혼재(混在)하며,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가 일어나고, 명확한 규범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아노미가 발생하는 등 **과도적인 문화는 그 통합성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한 위기에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가 줄어들고, 현대적 사회 구조와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적합성을 지닌 **명확한 가치와 규범이 확립됨으로써 문화의 통합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29. 밑줄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과도적인 혼합 문화는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가 혼재해 있는 문화이다.
- ② 과도적인 차용 문화는 외래 문화를 비판적·주체적으로 수용한 문화이다.
- ③ 정체성의 위기에 당면하면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 ④ 문화적 복고주의는 적합성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 ⑤ 문화의 통합을 위해서 명확한 가치와 규범이 확립되어야 한다.

30. <보기>는 최근의 '개량 한복' 이 나오게 된 과정을 보인 것이다.

윗글의 논지에 따를 때, ㉠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	외래 문화가 널리 확산된다 (가) 우리의 고유 문화가 위협 받는다. (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다) 의식주 생활에서 전통을 찾으려 한다. (라) '전통 한복'에 관심을 갖는다. (마) '전통 한복'은 활동하기에 불편하다. '개량한복'을 만든다
---	--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31. ㉡과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 ① 위기에 빠지게 ② 위기에 부딪히게
- ③ 위기와 마주치게 ④ 위기를 맞이하게
- ⑤ 위기에 맞닥뜨리게

32. 글쓴이가 주장한 정체성 회복의 방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은?

- ①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 ② 일상 생활에서 남용되는 외래어를 순화하여 사용한다.
- ③ 외래어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고유어의 어휘 수를 늘린다.
- ④ '산(山)'과 같은 한자어 대신 '뽕'과 같은 옛말을 살려 쓴다.
- ⑤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기 위하여 국어 어휘의 특성을 조사한다.

33. 밑줄로 볼 때, <보기>의 대화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2.2점]

할아버지 : 뭐 하니?

손 자 : 인터넷으로 '이메일' 보내는 중이에요.

할아버지 : 뭘 보낸다고?

손 자 : '이메일'이요, '이메일'

할아버지 :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 애, 할아버지께 잘 설명해 드려야지.

- ① 시아버지의 문화적 정체성을 문제 삼는다.
- ② 세 사람 사이의 문화적 폐쇄성을 확인한다.
- ③ 아들의 태도가 문화적으로 적합함을 주장한다.
- ④ 아들과 시아버지 사이의 문화적 통합을 추구한다.
- ⑤ 자신과 아들 사이에 새로운 문화적 규범을 확립한다.

비문학의 원리 이해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화의 기본적인 단위는 프레임이다. 테두리 혹은 틀을 뜻하는 프레임은 영화가 만들어져 상영되는 단계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된다. 촬영 과정에서는 카메라를 통해 들여다보는 장면의 구도로, 편집 과정에서는 필름에 현상된 낱날의 정지 사진으로, 그리고 상영 과정에서는 극장의 어둠과 화면을 가르는 경계선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이 개념은 **영화가 ㉠프레임을 통해 비추어진 세계이며 프레임을 경계로 어두운 객석의 현실 세계와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회화나 사진이 하나의 프레임만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영화는 연속적으로 교체되는 많은 수의 프레임들을 가진다. 그리고 이 프레임들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프레임일지라도 그 시간과 동작의 원래 맥락에서 분리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완결된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래서 관객은 눈앞에서 계속해서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뀌며 **재구성되는 프레임들을 그것의 ㉡극적이고 시간적인 맥락을 참작하여 이해하게 된다.**

또한 회화나 사진이 소재나 구성에 프레임을 맞추는 것과는 달리, 영화는 가로 세로의 비율이 언제나 일정한, 같은 크기의 프레임에 맞추어 내용물을 배치하게 된다. 이렇게 프레임이 고정되는 것은 그것에 필름이나 극장 영사막의 규격화된 형식을 이용해야 하는 **영화의 기계적, 기술적 조건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영화 프레임에서는 수직적 구성에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선 거리를 한 번에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수직적 프레임을 거의 볼 수 없는 것이다.

프레임의 완고한 형식성으로 인해 영화가 상영되는 조건에 따라서는 원래의 프레임이 변형되고 **결과적으로 감독이 의도했던 화면구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와이드 스크린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극장용 영화가 TV를 통해 방영될 때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5mm의 영화가 16mm로 축소된다는 것은 원래 프레임에서 화면의 3분의 1 정도가 잘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화면을 자르면, 원래 프레임의 가장자리에 있던 등장 인물이 변형된 화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등장 인물이 시청자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것에 깜짝 놀라거나 공포에 찬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영화 프레임이 갖는 이러한 제약성 때문에 영화의 매력이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식의 제약성으로 인해 오히려 영화의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고 작품의 예술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영화감독은, 소네트*가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에 오히려 구미가 당겨서 그 엄격한 형식을 택하는 소네트 작자에 견줄 수 있다. ㉤우리가 소네트를 읽어서 얻는 즐거움은 대체로 형식과 내용간의 긴장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기법과 소재가 이런 식으로 완벽히 융합할 때, 우리의 심미적인 즐거움은 고조된다. 이와 동일한 원칙이 영화의 프레임에 적용될 수 있다.

* 소네트 : 하나의 시행이 10음절로 된 14행의 정형시

34.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영화의 각 프레임은 독립적으로 완결된 의미를 지닌다.
- ② 영화는 프레임에 맞추어 내용물을 배치한다.
- ③ 영화의 프레임은 모든 대상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틀이다.
- ④ 영화 프레임의 규격은 대상에 따라 자유롭게 바뀔 수 있다.
- ⑤ 영화에서 프레임의 제약은 영화의 매력을 감소시킨다.

35. 밑줄로 미루어 ㉠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유리창을 통해 본 세상
- ② 배 위에서 바라본 등대
- ③ 천체 망원경으로 본 우주
- ④ 동굴 속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
- ⑤ 손거울에 비추어 본 자신의 모습

36. ㉡을 영화에 적용하여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는 형식과는 무관하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 ② 내용에 따라 형식이 결정될 때, 영화의 묘미가 커진다.
- ③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개 형식미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 ④ 형식의 엄격성 속에서 내용의 새로움이 창조될 때, 영화의 심미적 즐거움은 커진다.
- ⑤ 영화의 심미적 즐거움은 내용과 형식이 각기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는 데서 발생한다.

37. 밑줄에 대한 이해를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것이 좋겠어.
- ② 영화의 기법도 참조해 가면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좋겠어.
- ③ 기법과 소재를 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 ④ 배우의 대사나 연기에 관심을 갖고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좋겠어.
- ⑤ TV로 극장용 영화를 볼 때는 변형된 부분도 고려하여 감상해야겠어.

비문학의 원리 이해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힘센 거인 안타이오스는 땅의 여신 ㉠가이아의 아들이었다. 그는 대지(大地)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절대로 지지 않았다. 그의 영토를 통과하려는 여행자는 그와 겨루어야만 했는데, 살아서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와 맞붙는 일이 벌어졌다. 안타이오스의 어미어마한 ㉡힘의 원천을 알고 있던 헤라클레스는 그를 번쩍 들어올렸다. 발이 ㉢땅에서 떨어진 안타이오스는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신화는 수학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준다. 안타이오스가 ㉣대지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힘을 얻었듯이, 영속적이고 중요한 모든 수학이 ㉤자연 세계로부터 탄생하고 그 속에서 성장해 왔음을 수학의 역사는 보여 준다. 안타이오스의 경우와 같이, 수학도 자연 세계와 접촉하고 있는 경우에만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만약 수학이 자신이 태어난 견고한 대지에서 공기가 희박한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순수하게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상태로 너무 오래 머무르면, 힘이 약화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힘을 보충하려면 때때로 자연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

수학은 본래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생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실용적인 사실들의 수집에서 출발했다. 그 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 증명과 공리(公理)적 방법의 도입으로 확고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서 증명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설명이고, 공리적 방법은 증대된 수학 지식의 체계적인 정리(整理)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명이나 공리적 방법은 발견의 도구가 될 수는 없으며, 창의적 발상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리스 시대 이후 오랫동안 정체의 늪에 빠져 있던 수학은, 저명한 수학자이며 과학자인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진 후, 17세기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갈릴레오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지구 중력장 내의 물체 운동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을 많이 발견했고, 케플러는 그 유명한 행성의 운동 법칙 세 가지 모두를 밝혀 냈다. 이들의 업적은 수학 발전의 위대한 계기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발견이 현대 동역학(動力學)과 현대 천체 역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와 ㉦운동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수학 도구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미분 적분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학이 탄생했다. 옛 수학과 새로운 수학을 비교하면, 옛 것은 고정되고 유한한 대상을 고려하며 정적인 반면에, 새 것은 변화하고 무한한 대상을 연구하며 역동적이다. 이렇듯 수학은 자연에 발을 딛고 있을 때, 현대 동역학이나 현대 천체 역학과 같은 자연 과학의 발전에 공헌함은 물론 수학 자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38. ㉠~㉦ 중,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39. 밑줄의 논지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자연 과학은 수학적인 경우에만 진정한 과학이다. (칸트)
 ② 수학의 발전은 국가의 번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나폴레옹)
 ③ 수학을 통해서만 참된 과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쿤트)
 ④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수학적 발견을 위한 풍성한 공급원이다. (푸리에)
 ⑤ 수학은 모든 종류의 추상적 개념을 다루는데 매우 적절한 도구이며, 이 영역에서 수학의 힘에는 한계가 없다. (디랙)

40. 밑글의 서두에서 신화를 제시하여 얻은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신화와 본문의 내용이 서로 대응되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졌어.
 ② 신화는 원래 비유적인 본문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구나.
 ③ 딱딱한 내용인데도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런지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졌어.
 ④ 본문을 다 읽어 내려간 것은 신화를 활용해서 흥미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일 거야.
 ⑤ 신화가 내포하고 있는 교훈 때문인지 글쓴이의 주장이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 것 같아.

41. ‘옛 수학’과 ‘새로운 수학’의 특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옛 수학>	<새로운 수학>
① 정적	역동적
② 분석적	종합적
③ 구체적	관념적
④ 비조직적	조직적
⑤ 과학에 종속	과학에서 독립

42. ㉧과 같은 뜻으로 ‘운동’이 쓰인 것은?

- ① 지구의 자전 운동
 ② 국회의원 선거 운동
 ③ 수영하기 전의 준비 운동
 ④ 맨손 체조의 팔다리 운동
 ⑤ 자연 보호를 위한 환경 운동

비문학의 원리 이해

[43~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만이 ㉠말을 한다는 주장을 인간 중심의 사고로 보는 견해가 있다. 벌이 춤으로 꿀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히 알려 주듯이, 인간 이외에도 의사 소통 수단을 가진 동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물의 의사 소통 수단과 인간 언어의 ㉡차이를 알기 위해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나) 우선, 언어 표현과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사이의 결합이 ㉣자의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언어마다 달리 발음하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확인된다. 간혹 ㉤의성어의 경우는 이 관계가 필연적이라는 의미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필연성은 없다. 예를 들어 국어로는 개가 짖는 소리를 ‘멍멍’이라고 하지만 러시아어로는 ‘가브가브’라고 한다. 이는 우리가 지각한 소리에 대한 언어 표현이 꼭 그래야 할 필연성이 없음을 보여 준다. 게다가 실제 소리와 언어 표현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의 울음을 국어에서는 ‘음메’라고 발음하지만, 소는 그 소리대로 울지 않는다. ‘음메’라는 발음으로 우는 소가 있다면 그 소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소라고 하겠다.

(다) 의미에 대한 언어 표현이 언어 사회마다 다른 것은 이들을 연결시키는 ㉥약속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연결이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연필을 달라고 하셨다. 연필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공책을 집으셨다. 그리고는 앞으로 이 수업 시간에는 공책을 ‘연필’로, 연필은 ‘공책’으로 부르자고 하셨다. 선생님께서 다시 ‘연필’을 달라고 하셨다. 나는 얼른 공책을 드렸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가 새로운 약속을 하나가 의사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는 언어의 내용과 표현이 약속에 의해 결합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일단 사회에 수용된 약속은 개인이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

(라) 벌들도 서로의 약속이 없다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벌의 춤은 한정된 정보만 전달한다. 반면 인간은 한정된 수의 음소 및 단어와 그것들을 결합시키는 규칙을 토대로 새로운 단어와 문장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유한한 요소로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표현을 창조해 내는 것이 인간이다. 이러한 특성을 ㉧창조성이라고 한다.

(마) 인간의 언어는 지금 여기에 없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질도 가지고 있다. 어제의 일이나 다른 곳의 일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국어의 경우 과거의 사건은 어미 ‘-었-’으로, 다른 곳의 사건은 ‘저기에서’와 같은 부사어로 실현시킨다. 이처럼 현재 여기에 없는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전위(傳位)라고 한다.

(바) 이상에서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의사 소통은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위에 든 특질들은 인간과 동물의 의사 소통 수단을 구별해 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43. 밑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 ① 사고의 범위는 언어의 범위보다 좁다
- ② 인간은 언어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다.
- ③ 동물과 인간은 의사 소통 방법에 차이가 없다.
- ④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창조성이 실현된다.
- ⑤ 언어가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44. 밑줄로 볼 때, (다)의 특질이 생기는 이유는?

- ① 인간 언어에 보편성이 있어서
- ② 국가에 따라 언어 규범이 달라서
- ③ 언어마다 독특한 어휘 체계가 있어서
- ④ 인종마다 청각 기관의 구조가 달라서
- ⑤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에 자의성이 있어서

45. (라)에서 설명한 인간 언어의 특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전하고 싶은 바를 춤으로 표현한다.
- ② 작품성이 뛰어난 시를 외워서 낭송한다.
- ③ 인간과 벌 사이의 의사 소통 수단을 고안한다.
- ④ 이미 있던 단어를 합성하여 새 단어를 만든다.
- ⑤ 영어를 잘하기 위해 국어의 /ㅅ/를/z/로 발음한다.

46. ‘말’ 이 ㉠에 해당하는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겠습니다.
- ②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 ③ 그런데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 ④ 감정이 격해지니까 말도 거칠어지는데요.
- ⑤ 벌써 말이 퍼져서 이 일은 포기해야 하겠어요.

47. ㉡에 대해 ‘소의 울음’ 을 예로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소의 울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언어마다 다르다.
- ② 소의 실제 울음은 ‘음메’ 라는 발음과 똑같지 않다.
- ③ 소의 울음은 ‘음메’ 라고 발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④ 소의 울음을 ‘음매, 엄매’ 등으로 달리 발음할 수 있다.
- ⑤ 소의 울음을 ‘음메’ 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화자가 그렇게 지각하기 때 문이다.

48. ㉢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함께 갑시다. ② 골고루 먹어라.
- ③ 비가 오는구나. ④ 이게 뭘지 알아?
- ⑤ 책은 안방에 있어.

비문학의 원리 이해

[49~5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류의 역사에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많다. 그러한 사상가들은 현실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비추어 보고 해결하는 지혜를 후세들에게 제공해 준다. 독일의 시인이자 사상 가인 괴테(Goethe)도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인간성’을 추구하는 그의 사상은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아 있다.**

괴테는 정신 세계에 다양한 요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예리한 판단력,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예민한 감수성을 괴테만큼 두루 지녔던 사람도 드물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이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탐구하여 얻은 것이라는 데 그의 매력이 있다. 그는 평생 동안 완전한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다. 시인이자 자연 과학자이고, 사상가이며 정치가인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에 앞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어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인간성’을 이러한 삶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다운 인간은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결하고 선량하며 동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 그 바탕에는 내면 세계를 부단히 성찰하면서 자신의 참 모습을 일구어 가는 진지함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품성을 두루 갖춘 인간성을 괴테는 자연과 유사한 상태로 간주하였다.

‘진정한 인간성’을 강조하는 괴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대 사회의 척박함 속에서도 개인이 인간성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본다. 여러 가지 점에서 **‘현대인은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로 변해 가고 있다.’** 인간성의 근원이 자연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현대인은 자신의 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물질이나 이념과 같은 외면적 가치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왜곡된 인간성에 의해 저절러지는 폭력과 살생을 자주 목격한다.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부여된 고귀함을 잊은 채 욕망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떠오른다.

한편 ‘진정한 인간성’에 대한 요구는 개인과 집단의 대립을 야기하기도 한다. 괴테는 인간의 목표가 각자의 개성과 존엄성을 통해 보편성에 이르는 데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자연이라는 근원에서 나온 개체에 대해서는 자연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였지만, 개체와 근원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단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리하여 나폴레옹이 그의 조국을 점령하였을 때에 그는 괴히테(Fichte)만큼 열성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 물론 그도 자기 민족의 자유를 원했고 조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시했지만, 그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인간성이나 인류와 같은 관념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괴테는 집단 의식보다는 개인의 존엄성을 더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가)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에 속한 채 살아야 하는 현대인에게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떠오른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다수의 논리를 내세워 개인의 의지를 배제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효율성의 원칙만을 내세워 집단을 개인의 우위에 두면 ‘진정한 인간성’이 계발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이 조직 사회에 종속됨으로써 **‘정신적 독립성을 잃게 되는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괴테가 세상을 떠난 지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그는 현대의 공기를 마셔보지 않았지만 대단히 현대적인 시각에서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무서운 드라마를 끝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함께 ‘진정한 인간성’을 추구해야 한다. 물질적 편리함을 위해 정신적 고귀함을 간단히 양보해 버리고, 집단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순수성을 쉽게 배제해 버리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혼을 가진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순수하고 고결한 인간성을 부르짖는 괴테의 외침은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 가는 오늘날의 심각한 병폐를 함께 치유하자는 **‘세계사적 선서의 의미를 지닌다.’**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랑하는 마음과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고 각자 **‘진정한 인간성’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49.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현대인은 정신적 고귀함보다는 물질적 편리함을 추구한다.
- ② 괴테는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진정한 인간성을 활용하였다.
- ③ 괴테는 개성과 존엄성을 통한 보편성의 획득을 인간의 목표로 간주하였다.
- ④ 위대한 사상은 당대에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 ⑤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실천 의지가 요구된다.

50. 밑줄의 주된 논지 전개 방식은?

- ① 가설을 제시하고, 구체적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한다.
- ② 비유적인 예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일반화한다.
- ③ 상반된 두 주장을 비판하고, 여기서 절충적 관점을 도출한다.
- ④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⑤ 개념의 일반적 정의를 소개하고, 이러한 정의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51. ㉠에서 ‘메피스토펠레스’가 미소를 짓는 근원적인 이유는?

- ① 인간의 동정심 교양
- ② 영혼과 육체의 합일
- ③ 인간과 자연의 괴리
- ④ 현실과 이상의 갈등
- ⑤ 인간의 내면적 가치 추구

52. 다음 중, ㉡의 논지와 가장 가까운 것은? [2점]

- ① 개인과 집단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이며,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이다.
- ② 다수의 논리를 내세워 개인의 의지를 꺾는 것도 잘못이지만, 개인의 의지가 다수의 논리를 무시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 ③ 개인의 존엄성은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도 자기 목소리만을 높일 것이 아니라 집단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진정한 인간성은 이기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개인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주장하여 집단의 운영에 차질을 주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 ⑤ 개인이 집단의 목적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구성원의 비판이 없는 집단은 자기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5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괴테의 정신 세계를 잘 보여주므로
- ② 인류 사회의 본질적 문제와 관련되므로
- ③ 세계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 ④ 개인보다는 집단에 더 중요한 문제이므로
- ⑤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므로

비문학의 원리 이해

[54~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 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고 받거나, 말고 주고 되로 받는다’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장군 명군의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54.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보편화되어 있다.
- ② 사람들의 기호 및 자원에는 차이가 있다.
- ③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쌍방에게 이익을 준다.
- ④ 행위자의 자발성과 절차적 공정성은 호혜적 교환 관계의 전제 조건이다.
- ⑤ 반시장적 요소와 비시장적 요소는 서로 다른 의미이다.

55. 밑줄의 논지 전개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가설을 먼저 설정한 후, 그것을 구체적 현상에 적용하였다.
- ② 다양한 학설들을 소개한 다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하였다.
- ③ 정의, 비교대조, 예시의 방법을 활용하여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 ④ 여러 가지 특수한 사례로부터 현상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도출하였다.
- ⑤ 현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주장을 대비한 다음, 절충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56.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내가 무슨 셈을 따져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다
(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 ② 그로서는 만세를 불렀다는 말이 마지막 방패였던 셈이다
(박경리, 「토지」)
- ③ 나는 처음에 어떻게 되는 셈인지 몰라서 멀거니 천장만 한참 쳐다보았다.
(김유정, 「안해」)
- ④ 조금만 셈이 피면 공부를 시켜서 제 손으로 벌어라도 먹게 만들어 주고 싶지만…….
(염상섭, 「삼대」)
- ⑤ 윤태는 벌써 한 달이 넘게 오르내린 층계진만 밟을 옮길 때마다 번번이 그 숫자를 셈하게 되는 것이 싫었다. (유주현, 「하오의 연가」)

57.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내기 철에 품앗이를 하였다.
- ②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
- ③ 직장 동료끼리 교대로 점심을 샀다.
- ④ 할인 매장에서 싼값으로 물건을 샀다.
- ⑤ 알뜰 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맞바꾸었다.

58. ㉣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 할 때, 그 논거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반시장적 행위는 상호주의의 산물이다.
- ② 비시장적 요소는 시장의 기능을 보완한다.
- ③ 시장에서는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통용된다.
- ④ 시장에는 탈리오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반시장적 요소는 시장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

비문학의 원리 이해

[59~66] 다음 글과 그림을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전통적으로 서양화에서는 사생(寫生)을 중시하고, 사생을 할 때에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일정한 거리와 각도에서 그 시야 안의 사물을 관찰하고 묘사한다. 상상이나 허구에 의한 작품일지라도 작가는 대상을 고정된 시점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하여, 대상의 선, 형태, 빛, 색 등 객관적 요소를 사실적으로 그려 낸다. 그래서 화면 안의 명암과 색채의 변화는 반드시 특정한 시간 및 공간과 관련된 객관적 요소의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런데 동양의 화가들은 산을 거닐고 경치를 즐길 때 여러모로 자세히 그 풍경을 살펴본다. 그러면 산의 경치는 걸음에 따라 변하고, 봉우리도 걸음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이 때 화가는 이러한 관찰에서 얻은 풍부한 감동과 인식을 더욱 진실되게 표현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시점을 이동시키는 **산점 투시(散點透視)**를 채택함으로써 고정 시점의 제약을 벗어나게 된다.

산점 투시는 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양화는 산점 투시를 채택함으로써 구도에 융통성을 갖게 된다. 즉 시야를 고정시키는 초점 투시(焦點透視)의 제약을 벗어나므로써 한 공간 안에, 혹은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출현할 수는 없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물들을 한 폭의 화면에 처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더욱 돋보이고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산점 투시는 구도의 배치에 있어서도 더욱 많은 변화의 여지를 제공하였다. 구도의 필요에 따라 좌우와 상하의 거리 조정, 허와 실의 보완, 선김과 백백함의 변화 표현 등이 자유로워졌다. 그리하여 동양화가들은 사물의 외형적 질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게 되었다.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화면의 예술적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화가 자신이 가장 절실하다고 느낀 부분을 적절하게安排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대담하게 생략함으로써 동양화의 구도가 **융통성**을 갖게 되었다.

동양화의 특징인 **여백의 표현**도 산점 투시와 관련된 것이다. 동양화에서는 산점 투시를 택하여 구도를 융통성 있게 짜기 때문에 유묘취신(遺貌取神)적 관찰 내용을 화면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대상 가운데 주제와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만 을 취하고, 주제와 관계없는 부분을 화면에서 제거한다. 그 결과 여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 여백은 하늘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으며, 혹은 화면에서 제거된 기타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여백은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은 아니다. 그것은 주제를 돋보이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화면의 의경(意境)을 확대시킨다. 당나라 때 백가이(白居易)는 「비파행(琵琶行)」이라는 유명한 시에서 악곡이 쉬는 부분을 묘사할 때, “이 때에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낫다.(此時無聲勝有聲)”라고 하였다. 여기서 ‘일시적으로 쉬는 것.[無聲]은 악곡 선율의 연속인데, 이는 “뜻은 다 달았으되 붓이 닿지 않은(意到筆不到)” 것과 같은 뜻이다. 이로 인해 보는 이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작품은 예술적 공감대를 확대하게 된다.**

(나)

위 그림은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가 만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선상관매도(船上觀梅圖)」*이다. 이 그림에는 “그늘막에 꽃을 보니 마치 안개 속에서 보는 듯하네.(老年花似霧中着)”라는 제시(題詩)가 있다. 그리고 김홍도는 이 그림에 표현된 풍경과 정서를 다음의 시조로 그려 내어 우리의 감상을 돕는다.

봄 물에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놓았으니,
물 아래 하늘이요 하늘 위가 물이로다.
이 중에 늙은 눈에 보이는 꽃은 안개 속인가 하노라.

*선상관매도(船上觀梅圖) : 배 위에서 매화를 보는 그림

59. (가)에서 설명한 동양화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산점 투시법(散點透視法)을 주로 사용한다.
- ② 화면의 구성에서 서양화보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 ③ 대상의 객관적 요소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데 유리하다.
- ④ 동시에 출현할 수 없는 사물들을 한 폭의 화면에 처리할 수 있다.
- ⑤ 발걸음을 옮기며 관찰한 풍경에 대한 인상을 종합하여 한 화면에 그려 낼 수 있다.

60. (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의문은? [2점]

- ① 동양화가이면서 서양화의 기법을, 서양화가이면서 동양화의 기법을 사용한 사람은 없었을까?
- ② 서양화가 동양화의 투시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 ③ 동양 미술에서는 시대적 변화가 없었을까?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동양 미술의 특징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 ④ 동양화에는 표현 기법의 한계가 없을까? 동양화 기법의 장점만 언급해서 동양화의 기법은 완전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 ⑤ 동양화의 장점을 드러내기 위한 대조의 대상으로만 서양화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어서 서양화가 갖는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서양화의 장점은 무엇일까?

비문학의 원리 이해

61. <보기>의 현상이 나타난 까닭을 <가>의 첫째 문단에 비추어 설명한 것은?

보기

우리는 종종 뛰어난 산수(山水) 속을 거닐며 그 풍경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그것을 한 장의 사진으로 찍어 보곤 한다. 그러나 정작 인화된 사진에서는 그 좋았던 경치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고 그저 평범한 풍경으로만 남아 있는 것을 체험하기도 한다.

- ① 사진의 구도를 잘못 잡아서
- ② 촬영자의 심리 상태가 바뀌어서
- ③ 풍경의 세밀한 부분까지 보여 주어서
- ④ 자연의 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 ⑤ 사진기의 특성상 풍경의 한 면만 담겨서

62. <가>의 셋째 문단에서 설명한 '여백의 미' 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지아비 발 갈리 간 데 밥 광주리 이고 가서,
밥상을 들되 눈썹에 맞추는구나.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손님이나 다르실까.
- ②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혔구나.
사립문 열지 마라. 날 찾을 뉘 있으리.
밤하늘 한 조각 밝은 달은 그 벗인가 하노라.
- ③ 잘 새는 날아들고 새 달이 돌아 온다.
외나무다리로 홀로 가서 저 선사(禪師)야,
네 절이 얼마나 하관대 원종성(遠鐘聲)이 들리나니.
- ④ 샷간에 도롱이 입고 세우(細雨) 중에 호미 메고,
산전을 흠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牛羊)을 몰아 잠든 나를 깨우네.
- ⑤ 지당(池塘)에 비 뿌리고 양류(楊柳)에 내 끼인 제,
사공(沙工)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였는고.
석양(夕陽)에 무심한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더라.

63. 다음은 <가>를 읽고 난 뒤, <나>의 「선상관매도」를 감상하면서 한 이야기들이다. 잘못 이해한 것은? [2점]

- ① 주제와 관계없는 것들은 과감히 생략해 버렸구나.
- ② 인물과 매화를 각기 다른 위치에서 보는 것처럼 그렸는데!
- ③ 사람이 참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옛 그림에서는 명암 표현을 중요하게 여겼구나.
- ④ 멀리 있는 매화를 배보다 크게 그린 걸 보니, 이 그림이 왜 「선상관매도」인지 짐작이 되네.
- ⑤ 배와 매화 사이의 여백에서 '매화꽃이 안개 속에서처럼 아련하게 보인다.'는 시정(詩情)이 느껴지는 듯한데.

64. <가>의 밑줄 친 '성김' 과 '백백함' 의 의미 관계와 같지 않은 것은?

- ① 굵다 : 거칠다 ② 무르다 : 야무지다
- ③ 넉넉하다 : 풍분하다 ④ 느슨하다 : 팽팽하다
- ⑤ 가지런하다 : 들쭉날쭉하다

비문학의 원리 이해

[65~7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좋은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쉽게 감동을 느끼지만 과학 이론을 대하면 복잡한 논리와 딱딱한 언어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느낀다. 그래서 흔히 과학자는 논리적 분석과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 진리를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예술가는 직관적 영감에 의존해서 주관적인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통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 보면 많은 과학상의 발견들은 **직관적 영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나) 아인슈타인은 누구에게나 절대적 진리로 간주되었던 시간과 공간의 불변성을 뒤엎고,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과 공간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깨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직관적 영감에서 나온 것으로, **과학의 발견에서 직관적 영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 준다.** 그 밖에도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에서 만유인력을 발견하였고, 갈릴레이는 피사의 대사원에서 기도하던 중 천장에서 흔들리는 램프를 보고 진자(振子)의 원리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 안에서 물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 유레카!”를 외치며 집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과학의 발견이 ‘1퍼센트의 영감과 99퍼센트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

(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람들은 대체로 과학자들이 논리적 분석과 추리를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고 소박하게 믿고 있지만, 상당 부분 그 발견의 밑거름은 직관적 영감이고, 그것은 흔히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위대한 과학자들은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발견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논리가 아니라 의식의 심연으로부터 솟아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적 감각에 이끌린다고 고백한다. 문제와 오랜 씨름을 한 끝에 마음의 긴장과 갈등이 절정에 다다른 순간, 새로운 비전이 환상처럼 나타난다는 것이다. **과학의 발견은 이러한 영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언어로 기술하여 체계화된 것이다.**

(라) 한편, 화가나 조각가, 그리고 건축가들도 때로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창조하기 위해서 사물을 분석하고 해부한다. 그리스 시대의 황금 분할은 최대의 미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수학적 비례의 법칙을 ㉢치밀(緻密)하게 분석한 것이고, 아름다운 음악도 ㉣엄밀(嚴密)하게 계산된 소리의 배열과 공명 현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예술가들의 분석적 시각은 “자연의 모든 현상은 구, 원통, 원추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세잔의 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런가 하면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물결을 연상했던 시인은 소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시적 상상력 속에 융해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구축하는 데 직관적 영감에 의존하는가 하면, 예술가들은 과학적 지식과 관점을 도입하여 예술품을 창작해 내기도 한다.**

(마) 이러한 과학과 예술의 창조적 행위는 모두 인간의 본능인 탐구 욕구에서 출발한다. 탐구욕구는 과학자와 예술가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여, 새로운 상상을 자극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물론 과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연의 신비를 벗기는 것이지만, 그 동기는 예술에서의와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한 외경(畏敬)과 경이(驚異)의 감정이 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신비에 경이를 느낄 수 없는 사람, 감동하지 않는 사랑, 명상에 잠길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과학에 예술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상이한 정신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마치 무지개 색깔이 서로 겹쳐 들어가면서 연속되는 것과 같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과학과 예술은 중첩되어서 분명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65.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직관적 영감이 과학의 발견에 밑거름이 된다.
- ② 예술 작품에도 과학적 지식이 반영될 수 있다.
- ③ 과학은 객관적 진리를,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 ④ 과학과 예술의 창조적 행위는 탐구 욕구에서 출발한다.
- ⑤ 과학과 예술이 중첩되는 부분에 진정한 진리가 존재한다.

66. 각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일반적 통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② (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 과학자의 경험을 기술하면서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④ (라) 반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논지를 전환하고 있다.
- ⑤ (마) 논거를 보강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67.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학자들의 천재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못한다.
- ② 영감과 노력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기에는 미흡하다.
- ③ 창조 과정에 있어서 과학과 예술의 유사성을 시사한다.
- ④ 과학의 발견에서 직관적 영감의 역할을 과소 평가한 것이다.
- ⑤ 과학적 발견의 어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68. ㉢이 뜻하는 것은?

- ① 영감이 한 단계 비약되는 곳
- ② 직관적 영감이 체계화되는 곳
- ③ 논리적 분석이 적용될 수 없는 곳
- ④ 마음의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는 곳
- ⑤ 과학적 발견이 더 이상 불가능한 곳

69. ㉤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 ① 풀이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 ② 순이(順伊) 별레 우는 고풍(古風)한 뜰에/달빛이 밀물처럼 밀려 왔구나./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달은 과일보다 향긋하다.
- ③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별을 돌아보고/늦은 밤의 창문을 나는 달는다./어디선가 지구의 저쪽 컨에서/말 없이 문을 여는 사람이 있다.
- ④ 꿈을 야느냐 네게 물으면./플라타너스./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 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70. ‘㉢치밀(緻密) : ㉣엄밀(嚴密)’의 의미 관계와 같지 않은 것은?

- ① 인격(人格) : 인품(人品) ② 모순(矛盾) : 당착(撞着)
- ③ 남득(納得) : 수긍(首肯) ④ 오만(傲慢) : 거만(倨慢)
- ⑤ 분석(分析) : 분류(分類)

비문학의 원리 이해

[71~7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나라의 모든 사람의 공통 의식(共通意識)이 모이면 민족 의식(民族意識)을 이룬다. 민족 의식의 표현은 그 나라 말로 나타난다. **따라서, 각 민족이 쓰는 말에는 그 민족 나름대로의 세계상(世界像)이 들어 있다.** ㉠우리 겨레가 쓰는 말은 우리 겨레의 세계상을 담는 그릇이요, 우리 겨레의 공통적인 정신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말은 겨레의 알’이라고 한다. 이것은 겨레의 흥망(興亡)과 말의 흥망이 기복(起伏)을 같이 하는 역사적 사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말의 인식은 자기를 깨치는, 곧 자각(自覺) 하는 일인 동시에 민족을 깨치는 일이고, 나아가서 민족을 결합하는 원동력(原動力)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도 밝혀, “말의 공통성이 곧 같은 혈족(血族)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말은 공통적인 민족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민족 통일을 이루는 데에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했다.

말이 겨레의 얼의 상징(象徵)이며 민족 결합의 원동력이라는 데에서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처럼 소중한 말의 순화를 들고나올 때 문제되는 것의 하나가 [㉡들어온 말]이다. 이 들어온 말은 우리 겨레의 참된 삶이나 정신이 투영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말에서 속아 내야 할 말의 [㉢잡풀]에 지나지 않는다. 말의 잡풀은 뽑아 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말의 잡풀은 뽑아 낸 빈자리에 반드시 다른 말을 갈아 심어야 한다. **갈아 심는 말** 이것은 이미 쓰고 있는 말이거나, 혹은 옛말에서 찾아 낸 것이거나, 아니면 주어진 천부의 창조력으로 새로이 만든 말이어야 한다. 새 말의 만들, 이것은 언어의 자연 발생관(自然發生觀)에는 어긋나지만, **우리 민족의 세계상(世界像)을 담은 그릇인 말을 순화하는 데 피할 수 없는 창조 작업이다.**

말의 순화에서는, 먼저 말의 잡풀이 어느 것이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이를 바로 고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외국어]가 우리말에 들어올 때나 이미 들어와 혼돈(混濁)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말은 이들에 대하여 중간 세계(中間世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중간 세계로서의 말]은 객관적 세계의 일과 문, 곧 사물(事物)을 인식의 세계로 걸러 주는 ㉦체로 바꿀 수 있다. 이체가 성글면 우리의 인식도 성글어지고, 이체가 ㉧고우면 우리의 인식도 섬세하고 올바르게 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우리말은 우리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를 판단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 중간 세계에서 인식을 걸러 주는 ‘체’, 혹은 가치 판단의 ‘자’로서의 우리말에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은 들어온 말은 말의 잡풀로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면에서 볼 때, 말의 잡풀이란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니다. 우리말을 체로 하여 걸러지면서 비로소 그것이 잡풀로 확인되는 것이다. 우리말의 의식, 무의식은 민족의 자각, 자존의 사상과 함수관계(函數關係)에 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오랜 동안의 자아 상실(自我喪失)의 뒤나 국난(國難)을 겪은 뒤에는, 깨달음의 사상이 고조되어 자각, 자존으로 나타나곤 했다. 한편, 남 곧 외국에 대한 이해가 역설적(逆說的)으로 자각, 자존의 사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사상은 필연적으로 우리말, 우리글의 재발견(再發見)과 그것의 갈고 닦음으로 나타났다. 세종대(世宗代)의 자각 시대나, 영정조대(英正祖代)의 실학 시대(實學時代)나, 개화기의 근대화 과정(近代化過程)에서의 우리말, 우리글의 승상은 그 역사적 실증(實證)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각, 자존의 사상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역사적인 시련이 있었고, 그러한 시련 속에서 우리말의 심한 오염 현상(汚染現象)이 있었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깨달음의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말의 오염현상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오염된 말]의 순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한쪽에서는 깨달음의 의식이 아직도 흐리다. 그래서 말의 오염 현상을 확인하지도 못하는 듯하다. 이는, 우리말이 말의 순화에서 제1차로 작용하는, 인식을 걸러 주는 ‘체’로서의 기능을 잃었음을 뜻한다. 오염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제2차의 말 다듬는 과정이 뒤따르지 못함을 뜻한다. **여기에 인식을 걸러 주는 체로서의 우리말의 기능 회복이 국어 순화의 이유로 제기된다. 이 기능 회복의 근원적 치료는 겨레의 자존 의식(自尊意識)의 회복에서만 가능하다.**

71. ㉠~㉨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6점]

- ① ㉠ 들어온 말
② ㉡ 잡풀
③ ㉢ 외국어
④ ㉣ 중간 세계로서의 말
⑤ ㉤ 오염된 말

72. ㉠과 같은 주장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2점]

	우리 겨레의 말	겨레의 공통정신
①	높임법이 발달함	신분이나 천소 관계를 중시함
②	주어가 흔히 생략됨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지 않음
③	남성을 앞세우는 어순(예: ‘남녀’, ‘아들딸’, ‘부모’)	가부장제적(家父長制的) 의식
④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저의 좁은 소견으로’, 등의 표현을 흔히 씀	겸양을 미덕으로 삼음
⑤	‘나’ 대신에 ‘우리’를 더 즐겨 씀(예: ‘우리 나라’, ‘우리 남편’)	공동체적 연대 의식

73. ㉨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학생들이 과외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을 한때는 ‘서클’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를 ‘동아리’라고 고쳐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② 본래 포르투갈 말이었던 ‘뽕’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굳어진 것처럼, 좋은 외래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③ ‘기’라는 말은 ‘자동차’나 ‘아파트’와 잘 어울리고, ‘열쇠’는 ‘장롱’이나 ‘곳간’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들을 혼동해서 써서는 안 된다.
④ 사람이 영리한 것을 가리켜 ‘브라이트하다’고 하는데, 이런 생소한 외국어를 사용하지 말고 좀 더 친숙한 ‘샤프하다’는 말을 써야 한다.
⑤ ‘컬러’는 색, 색조, 색채, 개성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를 단일한 의미로만 사용해야 한다.

비문학의 원리 이해

7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의 잡풀을 걸러 준다.
 ② 민족의 참된 삶과 정신을 반영한다.
 ③ 민족적 자각을 가질 때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④ 객관적 세계와 인식의 세계 사이에서 작용한다.
 ⑤ 말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때 저절로 생겨난다.

75. ㉡과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 ① 배면 ② 가늠면
 ③ 밋밋하면 ④ 촘촘하면
 ⑤ 조밀(稠密)하면

76. 밑줄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2점]

- ①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지구 저편의 사건을 한 두 시간 안에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고유한 우리말을 간직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② 언어 정책 입안자들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언어 규범에 얽매이기보다는 대중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조사, 수집하여 우리말이 살아 있는 언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오늘날의 우리말에서 외래적 요소들을 제거해 버린다 면 이 시대의 정신적, 물질적 발전에 부응하는 표현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들을 무조건 배척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④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아야 하는 것이므로, 요즘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게 서구어를 적절하게 받아 들여서 우리말이 더 고급스러운 언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오늘날은 외국과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외국인들의 생활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어를 우리말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77. 밑줄을 바르게 이해한 독자의 반응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말이란 생활 속에서 익히는 것인데, 요즘처럼 너도나도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별 효 과가 없을 거야.”
 ② “요즈음 거리의 간판에서도 우리말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의 민족 정기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닐지 몰라.”
 ③ “배웠다는 사람이 오히려 토씨 빼고는 거의 모두 외래어나 외국어로 된 말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니 참으로 문제야.”
 ④ “프랑스 사람들은 국가 기관에서 외래어 심사를 할 정도로 자기네 말을 아낀다는데, 참으로 본받을 만해.”
 ⑤ “오늘날 우리에게서 우리말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갖고 정확하고 예절 바르게 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봐.”

[78~8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상(思想)은 개인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사회 공동체의 소산이다. 개인의 생각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것의 원형(原形)이 되는 사상들은 사회적 산물이다. 개인은 그 원형들 중에서 하나 혹은 몇 개의 사상들을 주관에 따라 선택하여 자신만의 사상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외부에 존재하던 사상들이 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통일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것만은 아니다. 서로 모순(矛盾)되는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서로 엉켜서 판단에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이 수용한 사상들은 처음에는 대개 여러 갈래로 갈려서 마음속에서 융성(융성) 거린다. 이러한 생각의 ㉠ 융성 거림은 일단 그의 사상이 풍부함을 의미한다.

행동적인 인간은 이 중 어느 하나의 사상이 우위(優位)를 차지하여 다른 생각이 대두하는 것을 억누르면서 행동의 방향을 다잡아 간다. 따라서, 위대한 행동가는 대개 심오한 사상가가 되기 어렵다. 반면에 사색적인 인간은 상반(相反)되는 사상들이 마음 속에서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만다. 이러한 사색가들은 대체로 회의주의(懷疑主義)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여러 곳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도리어 행동의 신속성 또는 행동자체가 지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색가는 대개 행동가가 되기 어렵다. 이들에게는 결단성 있는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반면에, 그릇된 판단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사상의 가치는 하나의 사리(事理)를 여러 면에서 고찰함으로써 그것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도록 해 주는 데 있다. 더 깊이 숙려(熟慮)된 사상을 근거로 한 행동일수록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을 궁극의 선(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상은 생각할 수 없다. 사상이란 결국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시대적 상황이나 자신의 입장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며, 또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사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져 주기를 바라면서도, 그의 생각이 자기의 것보다 나아 보일 때에는 슬그머니 그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추종성(追從性)은 인간의 주체성과 배치(背馳)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상호간의 이해를 통하여 보편적인 사상이 성립하도록 해 주는 바탕이기도 하다. ㉢ 주관의 독창성과 객관적 수용 가능성이 조화를 이룰 때 사상의 가치는 빛을 발한다.

78.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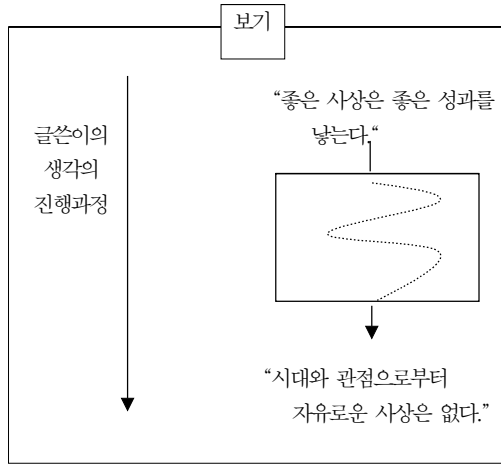
- ① 사색가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② 행동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상충하는 사상들은 판단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④ 개인마다 사상의 원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⑤ 보편적 사상은 인간들의 추종성을 극복함으로써 성립한다.

79. ㉠ ‘융성 거림’의 속성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다수 ② 다양성 ③ 뒤틀림
 ④ 무질서 ⑤ 움직임

비문학의 원리 이해

80. 이 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지의 전환은 <보기>와 같이 예시될 수 있다. <보기>의 □부분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궁극적인 선이 있다는 신념
- ② 사상의 효용 가치에 대한 회의
- ③ 사상의 발생 소멸 과정에 대한 회고
- ④ 최선의 성과를 낳을 사상에 대한 기대
- ⑤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별 기준의 확인

81. ㉓와 ㉔는 ‘사상의 가치’에 대한 언급이다. 그 차이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 ① ㉓ : 사상의 가치에 대한 정의
㉔ : 사상에 대한 정의
- ② ㉓ : 사상의 가치에 대한 정의
㉔ : 가치 있는 사상의 조건에 대한 설명
- ③ ㉓ : 사상의 사회적 원형에 대한 설명
㉔ : 개인의 사상에 대한 설명
- ④ ㉓ : 사상과 사리의 관계 규정
㉔ : 사상이 독창적이기 위한 조건 제시
- ⑤ ㉓ : 사상과 행동의 관계 설명
㉔ : 사상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82. 다음은 이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이 글의 핵심에 가장 가까운 것은? [2점]

- ① “결단력이 부족한 사색적인 인간보다는 위대한 행동가가 역사를 창조한다.”
- ② “제 아무리 뛰어난 사상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③ “행동가는 신중함을, 사색가는 결단력을 갖추도록 해야겠다.”
- ④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안목과 사상을 갖추는 데 힘써야 하겠다.”
- ⑤ “독창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 들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83~8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역사상의 모든 인간 사회들이 ㉑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은 공동체적 유대와 평화로움을 중시하는 칼라리리 사막의 수렵 채집민인 쿵 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최소한의 식욕을 해결하면 각종 놀이와 의례 행위를 통해 정신적인 즐거움과 화목한 사회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쿵 족의 태도는 사바나 생태계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들은 건기와 우기의 생태적 변화 과정이나 먹이감의 이동 경로, 식용 식물에 대한 지식 등에 기초하여 노동을 배분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씨족 집단의 구성원들과 생산물사냥도구를 공유함으로써 궁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 체계를 발전시켰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하여 우선 먹어야 하지만, **얼마나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분별한 ㉒부의 추구가 한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킨 경우를 아프리카의 유목민인 새홀 족에서 발견할 수 있다. ①1920년대부터 인구 증가로 고통받던 이 부족은 1960년대 중반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려 목초가 풍부해지자 경제적으로 가축의 수를 크게 늘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날씨가 건조해지자 그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가축들을 방목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터전인 목초지는 서서히 사막으로 변하여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문화적 적응 방식에 담겨 있는 생태 체계와의 조화라는 원리가 ㉓개인적인 욕구 추구로 대체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부의 축적이 ㉔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많은 인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의 과규틀 인디언은 20세기 초까지 ㉕상비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포틀라치라는 축제를 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더 높은 위신과 권위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손님을 초대하여 많은 선물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중한 재화를 파괴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집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현대인의 눈에 낭비적이고 파괴적으로 보이는 이 축제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조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정치적 위신과 권위를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를 통해 부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뉴기니아 마링 족의 대규모 돼지 도살 축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들 수 있다. 마링족은 사육하는 돼지의 수가 곧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성껏 돼지를 돌보고 돼지고기를 식탁에 올리지 않는다. 이러한 금기가 깨어지는 것이 카이코라 불리는 축제 기간이다. 이 축제는 돼지의 수가 늘어나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노동력이 달려서 돼지를 돌보기 어려워지는 시기에 열린다. 축제가 열리면 평소에 먹기 어려운 돼지고기를 싹둑 먹고 동맹 부족의 사람들을 불러 돼지를 선물한다. 이를 통해 전쟁에서의 동맹 세력을 확보하고, 노동력에 여유를 얻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복원한다.

이상의 사례들은 물질적 풍요의 추구가 한 문화의 중심적 가치가 아닐 수 있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처럼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문화의 제도나 관습들이 그 나름의 역사적·경제적·생태적 조건 등을 기초로 발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정한다든지, 어떤 문화 요소의 좋고 나쁨을 논하기는 어렵다.**

비문학의 원리 이해

83. 밑줄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신문화의 중요성 강조
- ②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
- ③ 우리 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재인식
- ④ 물질적 풍요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
- ⑤ 서구적 가치의 지속적 추구에 대한 재평가

84. 밑줄의 논지 전개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여러 개념을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 ② 역사적 관점에서 대상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 ③ 여러 사례를 들어 주장하는 바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 ④ 여러 이론적 입장을 대비시켜 주장하는 바를 개선하고 있다.
- ⑤ 주장하는 바를 유사한 경험을 들어 순차적으로 밝히고 있다.

85.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86. ㉣의 사례에 어울리는 속담은?

- ①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
- ②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 ③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 ④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 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87. 밑줄의 논지와 거리가 먼 진술은? [2점]

- ① 대중 가요도 ‘고급 문화’가 될 수 있어.
- ② 사람에게 따라서는 채식만 하는 경우도 있어.
- ③ 중고등 학생들이 이성애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
- ④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 ⑤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

[88~9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자인(design)의 기본 개념은 기능과 모양새이다. 이 두 요소는 서로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사이의 조화를 찾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다. ㉠기능을 중시하다 보면 모양새가 마땅치 않고, 모양새에 치중하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의 비행기와 자동차를 예로 들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디자인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 속을 유영하는 물고기를 보고 모양새를 창안해 냈다고 한다. 최초의 비행기는 새를 모방함으로써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비행기의 엔진이 점차 강력해짐에 따라 새의 날개가 지닌 양력(揚力)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초보 단계의 비행기 설계에서는 어떻게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커다란 과제였지만, 더 발달된 비행기에서는 어떻게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 때 비행기는 오징어의 추진 원리를 응용했다. 오징어는 힘차게 물을 분사하여 얻어진 힘으로 물살을 가르고 나아가는데, 이것을 본떠서 비행기의 날개를 좀더 작게 만들어 뒤쪽에 다는 방식으로 디자인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비행기를 만들 때에는 하늘에 떠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충실해야 하므로, 모양새보다는 기능에 충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비행기의 작은 날개 하나조차도 철저하게 기능 위주로 설계된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비행기의 모양새가 형편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행기는 모양새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기능에 충실함으로써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얻었다. 유행에 현혹되지 않고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가장 단순하고 세련된 형태를 낳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의 모양새를 모방하여 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운전자의 자리가 앞쪽에 있으며 앞좌석에는 두 사람만 앉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꼭 이런 구조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혹 이러한 생각 속에 자동차를 쌍두(雙頭) 마차의 일종으로 보는 선입견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디자인 연구가는 자동차의 디자인이 마차 시대의 관습과 유행에 얽매었다고 말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자동차의 전조등이 둘이라는 것, 운전석이 앞좌석의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도 마차 시대의 산물이 라고 주장한다. 사실 좌우를 잘 보기 위해서라면, 자동차의 눈이 양옆에도 붙어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현대의 조명 기술 정도면 전조등을 한 개의평면 광선으로 처리하고 운전자의 눈을 현혹시키지 않는 정도에서 노상(路上)의 필요한 곳만 비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컨대 자동차가 마차를 모방하는 경우에도 차라리 쌍두 마차 대신 사두(四頭) 마차를 모방했다면, 운전자는 자동차 앞부분의 좀더 높은 자리에 앉아 앞과 옆을 잘 보면서 핸들을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자동차가 사두 마차의 구조를 빌려온 예는 아직 보지 못했다.

탁월한 디자인은 자연의 현상에 주목한다. 예컨대 비행기나 자동차 등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기계를 설계할 때에는 동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속도를 얻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비행기는 속도와 모양새를 성공적으로 얻었고, 자동차는 기존의 관념에 매달려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디자인의 도식과 유행에 익숙해져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점차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고 있다. 혹 이런 비유는 어떻게. 우리가 ㉡꽃을 보면서 그 꽃이 ‘조화(造化)’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비문학의 원리 이해

우리가 정작 배워야 할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연성이다. 설령 인위적으로 잘 디자인된 작품을 보고서 감탄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결코 자연의 위력에는 미할 바가 못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괄호를 치고, 자연에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

88.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디자이너는 자연에서 배워야 한다.
- ② 디자이너는 전통적 기준을 중시해야 한다.
- ③ 유행에 얽매어서는 좋은 디자인을 얻을 수 없다.
- ④ 디자인에서는 기능과 모양새의 조화가 필요하다.
- ⑤ 기능을 추구하다 보면 독창적인 디자인을 얻을 수도 있다.

89. 디자인의 관점에서 볼 때, '비행기 - 자동차'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기능적 - 인습적 ② 예술적 - 실용적
- ③ 도식적 - 창의적 ④ 상징적 - 사실적
- ⑤ 전통적 - 현대적

90. ㉠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1.6점]

- ① 진퇴양난(進退兩難)
- ② 점입가경(漸入佳境)
- ③ 일진일퇴(一進一退)
- ④ 갑론을박(甲論乙駁)
- ⑤ 양자택일(兩者擇一)

91. ㉡과 사고 방식이 가장 비슷한 것은?

- ①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② 현실 체험이 독서 체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 ③ 풍경화를 보고서 자연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함.
- ④ 새장에 갇힌 새를 보고 자유가 소중하다고 생각함.
- ⑤ 맛 좋은 음식이 영양가 높은 음식보다 좋다고 생각함.

92. 문맥상, ㉢의 핵심적인 내용은?

- ① 과학 기술과 윤리 의식의 조화
- ② 아름다움과 유연성의 조화
- ③ 단순성과 실용성의 조화
- ④ 모양새와 전통의 조화
- ⑤ 이성과 감성의 조화

93. 밑줄의 논리 전개 방식을 바르게 말한 것은? [2점]

- ① 연관된 개념들을 제시함으로써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대조되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 ③ 인공물을 자연물과 비교함으로써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의 변화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⑤ 논리보다는 재치있는 수사법을 동원하여 설득력을 얻고 있다.

[94~9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과학 이론은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이기도 하다. 흔히 과학이란 관찰과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어떤 과학 이론도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들 생각한다. 경험된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과학 이론은 자연 현상에 대해 기술하고 예측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떤 이론에서 예측된 내용이 실제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이론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관찰 결과가 이론의 생사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나) 그러나 **관찰과 이론의 관계가 항상 그렇게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다.** 뉴턴의 예를 들어보자. 뉴턴은 중력과 운동에 관한 이론을 발표하여 과학 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 당시 뉴턴의 이론이 모든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천문학자들은 뉴턴의 이론을 근거로 예측한 달의 운동이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은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천문학자들에게 달을 관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다시 관찰하도록 충고하였다. 천문학자들은 뉴턴의 충고를 따라서 그들의 관찰 방법을 수정하였고, 그 결과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천문학자들이야말로 (㉠)격이라 할 수 있다.

(다) 뉴턴의 이론이 발표된 이후 거의 한 세기가 지나서 천문학자들은 다시 천왕성의 궤도가 뉴턴의 이론이 예측한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그들은 뉴턴의 이론을 의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천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뉴턴의 이론을 토대로 그 행성의 위치와 질량을 계산해서 추적한 결과 실제로 해왕성이라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론이 새로운 발견을 유도한 사례이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이론에 모순되는 관찰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론을 쉽게 포기하지 않은 예는 과학사에 드물지 않다.**

(라) 뉴턴의 이론은 그것을 신뢰했던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명료하게 다듬어졌고, 과학사에 탁월한 업적으로 길이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권위 있는 과학 이론은 토마스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의 역할을 한다. 패러다임이란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 기술 등의 총체를 말한다. 패러다임은 과학적으로 탐구할 만한 문제를 규정해 주고, 과학자들이 취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모형을 제공하며,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과학에서 패러다임의 존재는 거의 절대적이어서,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한다. 따라서 **패러다임과 일치하지 않는 관찰 결과가 나왔을 때, 과학자들은 이론을 의심하기보다 관찰 결과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그 불일치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마) 그러나 이론에 모순된 관찰 결과들이 증가하면 패러다임은 위기를 맞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관찰 결과들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들이 쏟아져 나와 서로 경쟁하는 **㉢혼돈(混沌)**의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이 때에도 과학자들은 하나의 이론이 승리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비문학의 원리 이해

로 확립되기까지 기존의 패러다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론에 모순되는 관찰들, 다시 말해서 이론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반례(反例)들을 앞에 놓고서도 기존의 과학 이론을 포기하지 않는 과학자들의 태도는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자들의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과학적 이론이란 세계를 보는 도구이며, 도구 없이 세계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94. 각 단락의 핵심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가) - 이론이 관찰에 의해 좌우된다는 통념
- ② (나) - 이론이 관찰 방법을 수정시킨 사례
- ③ (다) - 이론이 새로운 발견을 유도한 사례
- ④ (라) - 패러다임의 성립과 이론적 근거
- ⑤ (마) - 패러다임에 대한 과학자들의 태도

95. (나)의 내용으로 보아 ㉠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길러 준 개 주인 문
- ② 돈 없고 친구 잃은
- ③ 다 된 밥에 재 뿌린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
- ⑤ 혹 떼려 갔다가 혹 붙인

96. ㉡의 사전적 의미는?

- ① 몹시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함.
- ② 무질서하게 뒤섞여 몹시 복잡함.
- ③ 뒤숭숭하고 수선스러워 어질어질함.
- ④ 뒤범벅이되어 구별이 확실하지 않음..
- ⑤ 구별되어야 하는 것들이 같은 것으로 취급됨.

97. ㉢에 대한 과학자들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관찰결과를 중시해야만 하니까요.
- ② 그것은 성급한 비판입니다. 새로운 대안이 없는 한, 완전하지 않은 이론일지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이니까요.
- ③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모름지기 자기 이론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니까요.
- ④ 유감이지만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관찰과 모순되는 이론이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요.
- ⑤ 뉴턴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장을 건지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98. ㉣ :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장미 : 꽃
- ② 물고기 : 강
- ③ 악어새 : 악어
- ④ 후보자 : 당선자
- ⑤ 어머니 : 아버지

99. 뉴턴의 이론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뉴턴의 이론은 과학자 사회의 신뢰를 받았다.
- ② 뉴턴의 이론에 따라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였다.
- ③ 뉴턴은 중력과 운동에 관한 이론을 발표하였다.
- ④ 뉴턴의 이론은 과학자들의 문제 해결에 모형을 제공하였다.
- ⑤ 뉴턴의 충고대로 천문학자들은 달에 대한 관찰 방법을 수행하였다.

[10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연구한 사피어(E.Sapir)에 의하면, 흔히 생각 하듯이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살고 있으며, 언어가 노출시키고 분절(分節)시켜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한다. 워프(B. Whorf) 역시 사피어와 같은 관점에서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결정하고 주조(鑄造)한다고 말한다. 사피어와 워프의 말에 비추어 우리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 말에서는 초록, 청색, 남색을 ‘푸르다’고 한다. ‘푸른 숲’, ‘푸른 바다’, ‘푸른 하늘’ 등의 표현이 그러한 경우로, 우리는 이 다른 색들에 대한 한 가지 말을 쓰고 있다. 사피어와 워프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는 숲, 바다, 하늘을 한 가지 색깔로 생각하게 된다.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 것이다.**

(나) 어떤 색깔에 해당되는 어휘가 없다고 해서 그 색깔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어휘가 있으면 인식하기가 쉽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겠지만 어휘가 없다고 해서 인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되 그 생각을 표현할 적당한 말을 갖고 있지 못할 뿐이거나 말을 잊어서 표현에 곤란을 느낄 뿐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문법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의 명사나 형용사에는 남성을 나타내는지 여성을 나타내는지를 변별해서 사용하도록 해주는 문법적 장치가 있다. 이에 비해 우리말은 그러한 장치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 이성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들을 볼 때,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100. (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언어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
- ② 사고 능력이 발달하면 사고가 언어의 영향을 벗어난다.
- ③ 언어가 다르면 동일한 현상에 대한 사고 방식도 달라진다.
- ④ 사고 능력이 발달하면 의사 소통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 ⑤ 언어를 학습하려면 그 언어를 낳게 한 사고 방식부터 파악해야 한다.

비문학의 원리 이해

101. (가)의 논지를 설명하는 예로서 적절치 않은 것은?

- ① 실제로는 잘 구분되지 않은 물줄기들이지만 ‘개천’, ‘ 시내’, ‘강’이라는 말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물줄기들을 그 말에 따라 구별한다.
- ② 우리가 직계 1세대 위 남자를 ‘아버지’, 2세대 위 남자를 ‘할아버지’라 하는 것처럼 서구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
- ③ 현대인은 보통 몇 시간(時間), 몇 분(分), 몇 초(秒)라는 용어를 쓰지만 옛날 사람들은 ‘한나절’, ‘두어 참’ 등의 말을 즐겨 사용했다. 그러므로 두 시대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④ 우리가 무지개 색깔을 일곱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개 현상에 대한 색깔 용어가 일곱 가지이기 때문이다.
- ⑤ 영어에는 ‘뜨겁다’는 말과 ‘맵다’는 말이 같은 단어(hot)로 되어 있기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뜨거운 것과 매운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102. (가)의 논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 ② 인간의 사고는 보편적이므로 언어와 상관 없다고 주장한다.
- ③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을 제시한다.
- ④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틀렸음을 지적한다.
- ⑤ 언어가 사고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견해에 적극 찬성한다.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③	⑤	②	④	⑤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⑤	④	⑤	②	⑤	②	②	④	③	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③	⑤	①	①	③	③	①	②	②	⑤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④	②	④	②	②	④	④	⑤	④	②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①	①	④	⑤	④	②	③	⑤	②	④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③	⑤	②	①	③	①	②	⑤	③	②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⑤	①	③	③	⑤	④	④	③	③	⑤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④	②	①	⑤	③	③	①	⑤	③	④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②	⑤	②	③	⑤	①	③	②	①	①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③	②	②	④	⑤	④	②	④	③	③
101	102								
②	①								